

不實방지 기대

건설협회 공표 가격 참고키로

행정쇄신위원회가 노임 단가 현실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정부노임단가 현실화가 실현되게 됐다.

이날 행정쇄신위원회는 정고시하는 노임단가를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작성

한 가격과 연계토록 하는 것이므로 건설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가격을 참고로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은 물가상승의 우려에 도 불구하고, 현실노임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표

현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시

중노임대비 정부노임 비

율은 지난 86년 85.3%

에서 90년 51.7%로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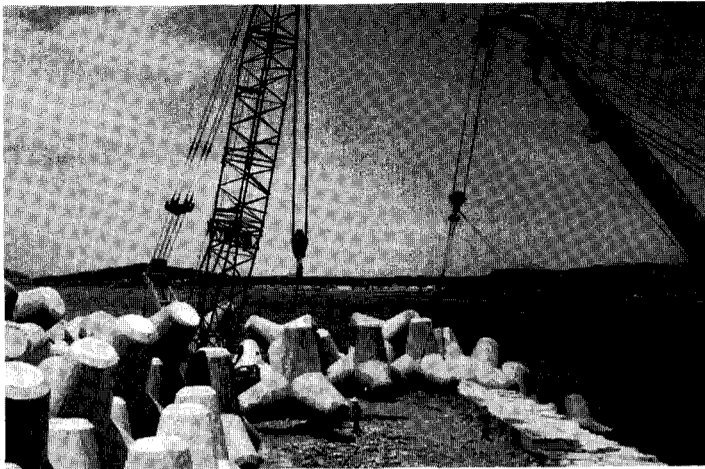
어진 이후 금년에는 72%

9%까지 절감되고 있다.

노임상승률에서 조부노 임과 시중노임 격차가 20%로 줄어들 경우 업계에 돌아갈 혜택은 지난 92년 평균공사발주규모 14조 6천 4백 74억원 기준, 약 5천억원(1개회사당 3억 원)·10%로 줄어들 경우 1조원(1개회사당 6억 원)·격차가 완전 해소될 경우 2조 7천억원(1개회사당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 돌고 는 혜택이 큰만큼 업계의 만류 커지게 됐다.

정부, 건설노임 현실화



■ 행정쇄신위원회가 노임단가 현실화 방안을 의결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정부노임단가 현실화가 실현되게 됐다

건설면허기준 대폭 완화

시행령 개정 예고 관련단체 협의 거쳐

건설면허기준 완화, 포장특수면허폐지, 일부 전문건설업종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말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이날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개정건설업법의 시행에 앞서 추진 되는 것으로 부실공사 방

추한 모범개정과 아울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임원기준 등의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입법예고안 확정예안 조정을 전방이다.

최저가 낙찰 부조리 요인등 많아

업계 부찰제도입 촉구

건설업계는 낙찰자 결정에 있어 가장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성실한 시공을 유도 하는 등 시행상 부작용이 적고 현역에 맞는 부찰 제도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따르면 현행 제한적 최저가낙찰 제는 입찰자가 예상가격만 정확히 알면 공사수주가 1백% 보장되기 때문에 예가누설이라는 부조리요인이 발추과정 요소에 잠재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체, 공사의 64.4%(조사대상 59건 공사중 38건)의 낙찰률이 나찰기준선인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예가의 85%에 불과한 낙찰이 일어난다는 입찰자가 2인이 나고도 동 가입찰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집행할 때 국고지원 취소

총공사비 변경 원천적으로 불인정

예산편성완료 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예산 총사업비를 관계부처와 조율하여 통보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상 총사업비를 조정, 시행할 때는 총사업비 변경내역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발주를 위한 예산가결은 예산상 총사업비중 총공사금액과 법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전체사업계획이 세부단위 사업별도 분할발주되는

경우에는 세부단위 사업별 공사범위내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토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렸다.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 건설공사의 일괄하고도법

일괄하고도법 도입 시 종합이력 배양책

건설부는 현행 건설업 법령상 건설업체가 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도 분할해 전문업 리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 일괄하고도법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일 반공사의 종류별도 분

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월 14일 국회의원회 관에서 개최된 사회간접 자본 확충방안 모의를 위 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 기 선임연구원(한국개발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는 사회간접자본의 절대 부족으로 기업의 불유비 용을 가중시켜 막대한 경제손실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 음을 지적하고 사회간접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충키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소요를 최소화하 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 해 국토공간의 개편과 지역개발정책을 지속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건설에 동원토질이 앞장 서겠습니다

<p>營業分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土質調査 · 土質試驗 · 平板 및 과일 載荷試驗 · 構造物 基礎, 土留構造物, 軟弱地盤處理 工法 및 施工監理 · 地下水開發 · 그라우팅 工事 	<p>經營陣 및 技術者</p> <p>代表 理事 張 麟 變</p> <p>副 社 長 李 仁 健</p> <p>技術士(應用地質)</p> <p>專 務 理 事 尹 基 述</p> <p>專 務 理 事 李 兆 源</p> <p>理 事 金 晟 秀</p> <p>技術士(土質및基礎)</p>
---	--

(株) 東 原 土 質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49-3번지(삼영빌딩 2층) TEL: 595-5040~6 FAX: 532-5044

